

한국여성재단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인사말
2006-12-6 6:30PM Press Center

딸들과 아들들이 함께 우뚝 서는 평등세상을 꿈꾸며 출범한
한국여성재단의 창립7주년을 기념하는 Lucky 7 Herstory Party에
바쁜 연말이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주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pecially 7년 전 창립당시 명예추진위원장으로 재단출범에 큰 힘이 되어주
셨던

이희호 전 대통령 영부인에게서 자리를 같이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초심을 찾게 하여주신 것이 기쁩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지난 7년간의 역사와 업적은

이 행사를 빛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적이며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진 성과임을 분명히
하면서

새삼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재단의 기획홍보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Lucky 7 Herstory Party로 명명한
것은

행운의 숫자인 7년간 여성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7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업무는 뭐니 뭐니 해도 모금과 배분입니다.

7년을 되돌아볼 때 아직 목표를 10%도 달성하지 못한 기금모금을 보면
자기성찰이 크게 요구되지만

50억에 불과한 지원금으로

파트너 단체들이 여성 특유의 알뜰함과 집요함 그리고 열정으로 일궈낸
여성발전과 사회변화는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데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여성재단이자 최초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7년간 미지의 노정을 헤쳐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현장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한 공동노력의 부족,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한계성, 정부가 모금의 경쟁상대라는 등의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정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향의 몰림 현상이 두 해에
더 큰 문제는 기부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이는 현상일 것입니다.

공익활동보다는 불우이웃돕기, 시민단체 활동보다는 정부사업, ^{이러한} 여성보다는 남성, 약하고 작은 것보다는 강하고 큰 것에 쏠리고 있어서 기부문화에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기부문화에서 성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영환의 글

본문의 여왕전역 할 함양에서 함양 구하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합니다.

여성의 기여가 없는 국가발전과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성을 위한 투자는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7년간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우리의 몫, 여성의 몫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그 열정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재단은 이곳저곳에서 ^의하던 그동안의 결방살이를 접고

지난 8월 서교동에 재단건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을 모시고 집들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가일층 분발해서

보다 알찬 우리의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일에 ^{함께해요} 함께하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2004년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출범을 선언한 바 있는
<미래포럼>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한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현상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상황 극복에
여성들로 하여금 적극 대응하도록 함께하며 지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지도자들이야말로
성평등사회 건설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여겨 존경을 표합니
다.

시간제약으로 일일이 거명해서 감사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행사를 지원하여주신 분들,
행사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 ^{덕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과분(리)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